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맡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욕되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반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 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볼러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욕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A]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의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궤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뼘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뼘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뼘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뼘을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뼘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뤄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불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더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뼘 흘러 내가 되 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거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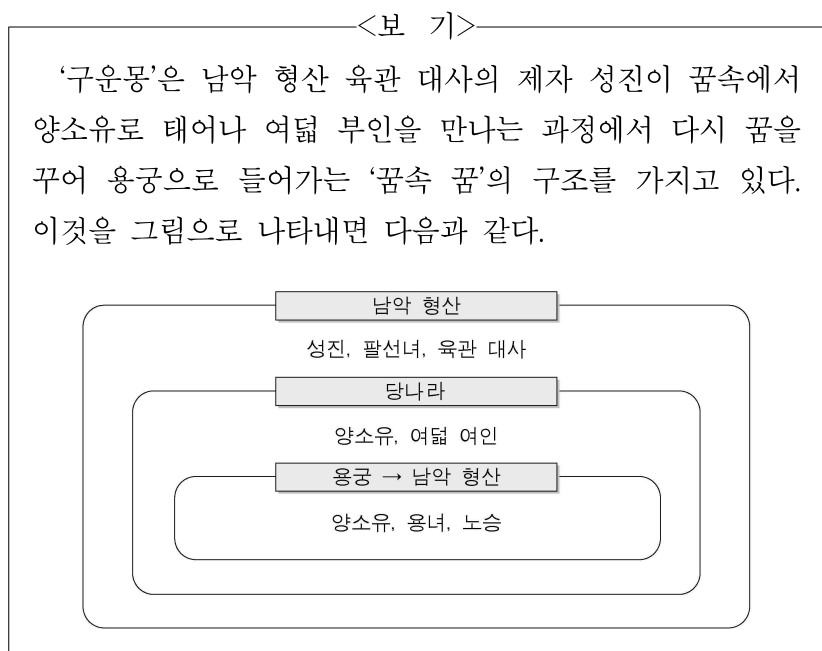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2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단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26.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1점]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맏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27.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떨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28.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